

세경본풀이 자청비의 휴머니즘적 성격

양영수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휴머니즘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을 궁극적인 인간 행복의 증진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속박하는 사회제도를 타파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욕망을 억압하는 사상, 인습, 종교 등을 구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상 휴머니즘 운동이 부당한 사회제도와 인습을 타파하는 투쟁의 형식을 취하는 예가 많은 것은 인간사회가 자연적인 인간 본성에 위배되기 쉬웠음을 말해준다.

제주의 무속신화가 휴머니즘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이것이 (중국신화의 경우처럼) 국가의 지배집단이 국민통합과 통치질서의 필요성을 계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거나, (그리스신화의 경우처럼) 우주운행의 역사를 극화시킴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일으키는 자연질서의 재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품었던 기복척화(祈福斥禍)의 소원을 투영하는 무속의례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즘

제주신화에서 신들의 존재이유는 인간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며, 이같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들에 대하여 인간이 증오나 반역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서, 중국신화에서는 신들의 존재이유가 인간역사의 창시를 위한 여러 가지 위업을 통하여 인간세계에 대한 통치권력을 확보하고 이를 즐기는 것이며,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의 존재이유는 신들 자신의 사랑과 권력(투쟁)을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은 오곡의 씨를 갖다주는 것이다. 천지왕은 하늘나라의 난을 평정한 자청비에게 기름진 땅을 갈라주겠다고 하지만 자청비는 그 대신에 제주 백성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오곡의 씨를 내려주기를 청한다. 자청비는 곡식의 씨앗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간에게 전해줌으로써 자신이 오랫동안 겪었던 시련과 고통을 마무리한다. 자청비가 인간세계에 내려준 선물의 의미는, 중국 및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준 선물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신화에서 인간에 대한 신들의 가호 방식이나 선물은 전방위적이고 위압적인 것이어서 신적인 통치자의 절대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초가 됨직하다. 창조신 여와는 하늘에 뚫린 구멍을 암장(巖漿; 마그마 같은 것)으로 메워줌으로써 인간세상의 존재를 가능케했다. 동방의 천제 복희(伏羲)씨는 인간에게 주역의 원리와 어로법, 불씨 등을 전해주었고, 남방의 천제 신농(神農)씨는 농경법과 의약술을 가르쳤고, 중화역사의 시조신인 황제(黃帝)는 하위신들의 반역을 평정하여 지상의 평화를 이루어주고 역법과 도량형과 악기사용법

을 가르쳐주었다. 마지막 대의 천제인 전옥(顓頊)은 해와 달을 북방 하늘에 붙박이로 묶어버림으로써 지상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켜서 공공(共工) 수신(水神)의 반란을 불러왔는데, 이는 인간이란 고난과 공포로 몰아넣어야 유순한 백성이 되는 속성이기 때문이었다. 잔혹한 성격의 이 상제는 마침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사이의 통로를 차단시켜 버린 다음에 자기에게 바치는 제사를 받기만하고 인간세계의 고통과 재난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데, 이는 지상세계에 이미 확립된 자연질서에 대해 인간이 무조건 수긍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하겠다. 중국신화의 천상유래적인 신들은 우주운행과 자연현상의 거대담론적인 질서 세우기에 몰두한 반면에, 제주신화의 지상유래적인 신들은 밑바닥 인생이 겪는 애증관계와 희로애락 정서의 울림이나 인간 운명의 굴곡 진 미로를 섬세하게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지배신이 아니고 변방의 군소신에 속하는 프로메테우스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신들의 전유물이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선사한다. 불이라는 선물은 인간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축복인지 재앙인지가 결정되는 위험한 시험대이다. 그리스신화에서 대부분의 신들이 인간의 소망과 행복에 대해 호의적인 배려를 하지 않음은, 자연현상 그 자체는 인간욕망의 성취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자연현상이 곧 신들이고, 천지불인(天地不仁)의 자연질서를 재현한 것이 신화 형성의 기원인 것이다.

2. 인간과 신이 동격이 될 수 있는 휴머니즘

제주신화의 한 가지 특징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 엄정하지 않아서 양자 간의 왕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지왕이 속한 천상세계나 용왕신이 속한 바다 밑 용왕국 같은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 나라도 인간세계와의 상호교류가 막혀있지 않다. 이들 나라는 인간세계하고 혼인이나 친교 등의 대등한 협력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인간과 신은 동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신화나 그리스신화에서는 신에게서 태어나야만 신이 되고,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는 신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에서 인간과 신은 동격이 될 수 없다. 제주신화에서는 극소수 신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들이 인간이 죽어가서 된 신들이고,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의 존재는 미미한 수준이다. 제주신화의 최고신인 천지왕만이 순수하게 천상세계에 속하지만, 이 최고신은 제주도 큰굿의 초감제 때에만 강신의식의 일부로 청해지고 제주신화의 일반본풀이에 따른 개별적인 굿이 행해질 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제주신화에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공존함을 보여주는 것이 서천꽃밭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환생꽃의 영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고, 인간이 신의 하사품인 환생꽃을 얻을 수 있는 서천꽃밭은 인간이 신과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정수남이나 문도령의 죽음을 당할 때 이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비상한 용기와 지략을 발휘하는 극적인 모험 끝에 서천꽃밭에 들어가서 환생꽃을 얻어온다. 인간과 신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 엄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꽃감관도 인간세계에서 뿔혀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이공본풀이이다. 서천꽃밭 꽃

감관으로 뽐혀가는 할락궁이라는 신화주인공은 인간이 죽어가서 신이 되는 예이고, 이는 ‘인간이 곧 신’이라는 제주신화 특유의 휴머니즘적 신관(神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들의 천상세계와 인간의 지상세계가 구분되는 중국신화에서 제주신화의 서천꽃밭에 해당되는 공간은 곤륜산이다. 중국신화에서 天神들의 거처인 곤륜산은 불사약이나 선도(仙桃) 등 인간의 영생 욕구에 응하는 비방을 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곤륜산을 방문했던 인간은 아주 극소수 영결들 뿐이었고, 천제의 딸이면서 곤륜산의 지배자인 서왕모(西王母)는 북에 겨운 귀족들의 호사취향에 영합할 뿐 제주신화의 서천꽃밭처럼 일반 민중의 간절한 소원 성취하고는 무관하다. 중국신화의 특권층 주인공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비방이 소원대상임에 반해, 제주신화에서 일반민중이 기원하는 생명의 특별한 축복은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이 환생하는 것임이 흥미롭다 하겠다. 중국신화에서 오방신(五方神)을 비롯한 초기의 신들은 원래부터 천상세계에 귀속되었고, 요순시대 이후 역사상 인물의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신격화되는 실재인물은 왕후장상의 높은 신분이라는 점이 제주신화에서 나타나는 일반 민초들의 신격화하고 다르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 엄정한 관계로 일단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삶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한다. (예: 올페우스와 유리디케의 이야기). 그러나, 제주신화에서는 저승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는길이 열려있을 수도 있다. (예: 강림차사 이야기와 환생꽃 이야기들).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제주사람들의 생명관의 표현일 것 같다.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산과 인간의 거처인 지상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올림푸스산은 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불가침의 공간이어서, 이곳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인간은 누구나 혹독한 벌을 받는다. 그리스신화에서 영생불사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랑과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기회는 신들에게만 주어지고, 신들의 절대적인 지배권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전쟁과 재난과 죄악으로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리스신화를 놓고 인생찬가의 휴머니즘적 서사라고 하지만, 그 속에 내재된 휴머니즘은 ‘그림 속의 미인’을 찬미하는 격이 아닐까 싶다.

3. 인간욕망을 용인하는 휴머니즘

제주신화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대해 억압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용인하고 발산시키는 서사구조가 많다. 뛰어난 담력과 남다른 욕망의 소유자인 자청비가 사회적인 인습이나 경직된 고정관념을 깨고 사랑의 욕망을 이루는 예가 많이 있지만, 이같은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중국설화 가운데 이와 매우 유사한 『축양전(祝梁傳)』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다. 자청비 설화는 10세기 경 중국의 오월(吳越) 문화권에서 형성된 이 설화와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¹⁾ 이 설화의 여주인공 축영대(祝英臺)는 (남장여인으로 남자들과 어울려 글공부하는 모습 말고는) 자청비와 같은 열정과 영특함

1) 중국의 조선족 문인단체에서 낸 『중조한일민담비교연구』(료녕민족출판사, 2001) 중에서 유성운의 「조선에서의 <양축> 전설의 전승변이 연구」 가운데 550-560쪽 참조.

과 능동성을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개척하지 못한다. 여성적인 뚝심에 있어서 자청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축영대는 (부모의 강청에 못 이긴 나머지) 자기를 열렬히 사랑하는 양산백(梁山伯)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림으로써 그로 하여금 상사병으로 죽어가게 한다. 자청비와 축영대 두 여성은, 사랑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정과 담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대동소이하지만, 자청비 이야기가 두 연인의 사랑의 소망이 (여성의 주도에 의해) 구현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남에 반하여, 축양전 이야기는 꽃가마를 타고 가던 축영대가 먼저 죽어간 남성이 묻힌 곳을 지나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잠시 후 땅이 갈라진 틈에서 두 마리의 나비가 나와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애절한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